주요 내용

▌최근 일본 기업의 對중국 사업 확대의 시사점 ▐

□ **동향**

· **(관련 산업)** 일본의 機電, 자동차 및 통신, 인터넷 사업 관련 대기업

· **(주요 형태)** 현지생산 확대, 판매망의 정비, 홍콩 경유 사업 확대 등의 형태를 취함

□ **배경 : 중국 시장의 선점**

· **(중국의 WTO 가입)** 상반기 예상되는 중국의 WTO 가입으로 중국의 무역·투자 자유화가 진전될 것으로 예상

· **(중국의 투자 관련법 정비)** 중국은 금년부터 금융업, 보험업 등 8개 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 제한을 완화할 예정이며, 금액별 허가 기준도 완화함

· **(중국의 성장 지속)** 향후 중국은 7%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보이며, 정부의 재정·금융 확장 정책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

□ **시사점**

· **(접근 자세)** 중장기적 관점에서 WTO 가입 이후 세계 경제에 정식 편입되는 중국 시장에 접근하는 자세가 필요

· **(진출 전략)** 중국의 획기적 개방 분야인 3차산업, 특히 정보산업에 대한 우리 기업의 참여가 필요하며, 이 경우 일본·구미 기업과의 제휴도 가능

· 외국 및 중국·홍콩 자본과의 제휴, 지방정부 차원의 협력 등 중국내 경쟁 환경을 자발적으로 변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함

현안 분석

최근 일본 기업의 對중국 사업 확대의 시사점

일본 기업의 대중국 사업 확대

– 최근 중국의 WTO 가입을 앞두고 일본의 機電, 자동차, 및 서비스업 관련 대기업들의 대중국 사업이 확대되고 있음

- 일본 기업들은 올해 상반기 중국의 WTO 가입을 예상하여 현지 생산 확대 및 판매망 정비 등 다양한 전략을 추진하고 있음
- 사업 분야도 機電, 자동차, 일반 제품 뿐만 아니라, 통신 사업 등으로 확대
- 특히 통신, 인터넷 분야 등 첨단 산업과 관련한 진출이 최근 두드러지고 있음

< 주요 일본 기업의 對중국 사업 확대 >

유형	기업	내용
현지 생산 확대	도시바	· 전자부품 자회사인 杭芝機電(浙江省)에 약 3억엔 투자하여 청소기 생산 개시 · 연내 중국기업 2사와 제휴하여 PC모니터용 브라운관 생산 착수
	마쯔시다	· 山東마쯔시다TV(산동성)에서 평면브라운관형 칼라 TV 생산능력을 연 80만대로 증가
	히타찌	· 上海에 에어콘용 콤프레서 합작공장에 5월까지 생산능력을 연 180만대에서 250만대로 증가
	미쯔비시電機	· 휴대전화기 연간 현지생산 2000년 50만대에서 2004년 700만대 · 반도체조립공장(北京)의 생산량 증산 검토 · 중국내 판매목표를 99년 100억엔에서 2000년 140억엔으로 상향
	JT(일본담배산업)	· 연내에 마일드세븐 등 자사브랜드 생산 개시 예정
	세이코 시계	· 2003년경 주력브랜드 '알바'의 중국내 생산비율을 90%로 증가
판매망 정비	미쯔비시자동차	· 연내에 大連과 天津에 수출하는 승용차 '파제로' 판매회사 설립 · 현지 합작생산과 동시에 판매망 확충 방침
	샤프	· 上海 보세구 내에 전자부품 판매 자회사 설립(3월 영업 개시)
기타	소프트방크	· 홍콩의 '청와디벨롭먼트' 지분의 61.5% 인수 예정 · 자본금 수백억엔 규모의 '소프트방크 차이나' 설립 검토
	NTT(일본전신전화)	· 홍콩 역내와 국제통신의 2개 분야에서 통신사업 연허 취득
	후지쯔	· 중국전신으로부터 북경-하얼빈의 약 1,400km 마이크로 무선시스템 연결 기간 전송망 프로젝트 수주 · 흑백 레이저 프린터를 현지 생산· 현지공급

주: 각종 자료를 참고하여 필자 작성

對중국 사업 확대의 배경

– (중국의 WTO 가입) 상반기 중 예상되는 WTO 가입으로 중국의 무역 자유화가 진전되어, 기업 경영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판단됨

· 중국은 작년말 미국·일본과 교섭이 타결되어, 올해 상반기 가입을 목표로 하고 있음. 그러나 최후의 관문인 유럽연합(EU)와의 협의가 남아 있음

· 미국이 공약한 항구적 최혜국대우(MFN)가 미의회의 반대에 부딪혀 실현되지 않고 있으나, 조만간 해결될 것으로 보임

< WTO 가입과 관련한 中美日 주요 합의 내용 >

합의 항목	내용
평균 관세율	· 2005년까지 평균 관세율을 22.1%→17%로 인하 · 광공업제품: 25%→9.4%, 농산물: 31.5%→14.5%, 하이테크제품: 13.3%→0%
통신	· 기본통신, 인터넷 등 부가가치 통신 모두 가입후 49%, 2년후 50% 외자 출자 인정 * 외자 49% 출자 단계적으로 인정
은행	· 인민폐 업무를 가입 2년후 對기업 업무 인가, 5년후 對개인 업무 인가 * 지역제한 완화, 인민폐의 취급을 일정기간 후 제한 철폐
보험	· 생명보험의 합작 인가 · 손해보험은 장래 외자 100% 현지법인의 설립 인가
자동차	· 2006년까지 관세 25%로 인하(수입수량제한을 가입후 8년후에 철폐) · 미국기업의 자동차 대출 제공 인정
서비스업	* 가입후 3, 5년후 외자계유통업의 지역제한, 사업자제한, 출자규제 철폐 * 외자계 도매업 인가조건을 자본금 4,000만 元, 본사의 연매출액 20억 달러, 총자산액 2억 달러 이상으로 함

자료: 稻垣清, "WTO加盟とビジネスチャンス", 「MRI中國情報」, 1999. 12
주: *표는 中日간의 합의 사항임

– (중국의 투자 관련법 정비) WTO가입에 따른 개방 일정과 관련하여 투자 제한 완화 등 외국인 투자 정책이 조정되고 있음

· 금년부터 금융업, 보험업, 항공산업, 관광산업, 중개서비스, 건설공정 부문 등 8개 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 제한을 완화할 예정임

· 지난 1월 정폐이얀(曾培炎) 국가발전계획위원회 주임은 서부지역 개발을 역점 사업으로 실시할 계획으로, 이 지역에 대한 각종 우대 정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힘
· 올 1월초 國家經濟貿易委員會는 총투자 금액에 따른 허가 기준을 발표하였음

1억 달러이상	반드시 國務院의 비준 필요
3,000만~1억 달러	각 부처 및 지방정부의 經濟貿易委員會가 심사후 國家經濟貿易委員會에 심사만을 보고
3,000만 달러 미만	지방정부가 승인하여 실행 가능

– (중국의 성장 지속) 향후 중국 경제는 7%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보이며, 정부의 확대 정책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

· 지난 1월 국무원 發展研究中心은 향후 20년간 중국경제의 연평균 성장율이 7.3%로 예상되며, 2000~2010년간 연평균 성장율은 7.9%, 2010~2020년의 평균 성장율은 6.6%에 달할 것으로 전망
· 금년에도 중국은 선택의 여지 없이 확대 재정·금융 정책을 실시할 것으로 보이며, 소비 진작 등의 정책이 지속될 것임
· 또한 중국은 성장 구도를 가속화시키기 위해 3차산업 투자를 확대하려는 정책을 실시할 것으로 보이는데, WTO 가입으로 인한 서비스업의 획기적 개방은 중국내 산업구조 조정에 유리한 역할을 담당할 것임

– (중국시장 선점) 일본의 對중국 사업 확대는 확장 가능성이 높은 중국 시장을 선점할 목적을 지닌다고 해석할 수 있음

· WTO 가입을 계기로 본궤도에 오를 중국이라는 거대시장에서 사업기회를 확장하려는 구미의 유력기업에 앞서 중국시장을 선점하려는 것임

시사점

– 중장기적 관점에서 중국시장을 접근하는 자세가 필요함

· 중국의 WTO 가입 및 성장 추세로 보아 2020년경에는 중국의 구매력이 全유럽보다 커지며, 중국의 수출은 세계 전체의 10%에 달할 전망임

· 일본 기업의 對중국 사업 확장은 일시적인 것이라기 보다는 장기적으로 WTO 가입 이후 세계 경제 체제에 정식 편입되는 중국 시장을 겨냥하고 있음
· 우리로서도 21세기에서 우리 경제의 가장 밀접한 동반자이자 경쟁자가 중국임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비가 마련되어야 함

– 일본기업의 최근 관심사이자 중국의 획기적 개방 분야인 3차산업, 즉 통신, 인터넷, 금융업 등에 대한 관심이 필요함

· 일본의 對중국 사업 중에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것 중 하나가 정보화 관련 분야임. 사업으로는 크게 소프트방크를 중심으로 하는 인터넷 사업, 컴퓨터 관련 하드웨어 사업(PC, 모니터, 프린터 등), 통신서비스 사업, 휴대 전화 등 통신 기기 사업 등임
· 정보화 분야에서는 중국의 급성장이 예상되므로 우리 기업의 활발한 참여가 필요하며, 이 과정에서 일본 기업과의 제휴 등도 고려할 수 있음
· 특히 최근 중국의 CDMA 방식 채택에 따른 국내 휴대전화 단말기 사업 및 중국 개혁에 따른 사회보장제도의 취약에 따른 보험업의 진출 등 우리 기업의 진출 효과가 큰 분야도 존재함
· 중국의 인터넷 사업 개방에 따라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무역 및 내수 개발도 검토할 수 있음

– 중국내 경쟁 환경을 자발적으로 변화시키는 노력이 있어야 함

· 중국시장에 관심이 많은 미국 및 유럽 자본과의 제휴를 통한 진출 및 일부 제휴 등을 고려할 수 있음
· 앞으로 기업의 국적은 크게 중요하지 않고, 기업 자체의 효율성만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며, 이에 따라 운영 인원 및 자본 구성의 국제화를 통한 기업의 다국적화도 검토 가능함
· 중국기업과의 합작, 청부 사업, 매수 합병 등 기업 형태의 유연한 변화 노력이 필요하며, 홍콩 기업과의 합작, 제휴를 통한 우회 투자 전략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
· 3,000만 달러 미만의 투자 경우 지방 정부의 재량으로 실행이 가능하므로 이에 따른 지방 정부 차원의 협력도 가능함

(황동언 연구위원 *hde@hri.co.kr* ☎ *724-4055*)